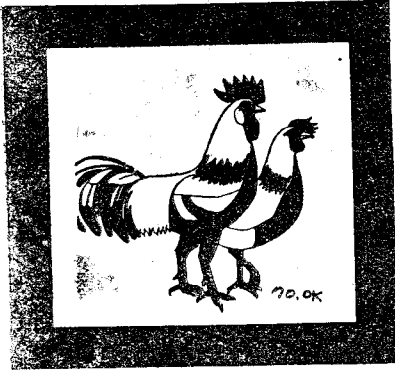


한국 재래종인 오골계에 관하여

〈오골계의 특성〉

이 후 립

<동아대 농대 교수>



1. 서 론

우리 나라의 순수한 재래종 가축이라면 가금류로서는 오골계(烏骨鷄)이고 포유류(哺乳類)로는 한우·제주우·재래 산양 등이다. 이 중에서도 우리 나라 한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역용우에 속한다. 이 외에 최근 20~30년 전에는 재래계와 재래돈이 일반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었으나 경제성이 미약했기 때문에 점차 혼혈이 되고 자연히 도태되어 지금에 와서는 그 순종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가금으로서의 유일한 이 오골계가 지금까지 잘 보존 번식되어 왔느냐하면 첫째 고래로부터 약용으로서 대단히 진귀하게 여겨져 왔고, 둘째 외모가 희귀하여 애완용으로 인기를 가치가 있었고, 셋째로 사람을 잘 따라 친근도가 높고 온순하였기 때문이다.

이 오골계라는 명칭은 피부와 음경의 빛이 흙색이고 근육과 골격까지도 Meranin색소가 침착되어 완전 흙색에 가까우므로 고래로부터 오골계라고 불려져 왔을 것이며 현재는 우리 나라 문공부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일련번호 제79호 지정번호 635호로 등록되어 있다. 문화재 보호법 중 제2조 문화재의 정의를 보면 제3항에 패총·고분·성지(城址)·경지·유물포함층 기타

- 제 1 회 오골계의 특성
- ◎ 제 2 회 오골계의 체형 측정
- ◎ 제 3 회 오골계의 발육 및 성성숙
- ◎ 제 4 회 오골계의 취소성 및 산란파의 관계
- ◎ 제 5 회 오골계의 난형 및 부화율

사적지(史蹟地)와 경승지, 동물·식물·광물로서 우리 나라의 역사상, 예술상·학술상 또는 관광상 가치가 큰 것(이하 천연기념물이라 한다). 그리고 동(同)시행령 제7조 천연기념물 지정기준을 보면

1. 동식물 중

- 가. 한국 특유의 동식물로서 저명한 것.
- 나. 한국 특유의 양축 동물 등으로 되어 있으니 이 오골계는 옛날부터 한국 특산물의 일종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오골계에 대한 사양의 역사는 길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희귀하므로 차체에 저자는 이 오골계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연구를 시도하고자 하는 바이며 앞으로 이의 개량과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동시에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하겠다.

2. 오골계의 유래

원래 닭의 선조는 적색 야계며 학명을 Gallus gallus 또는 Gallus bankiva라고 하고 인도·버마·말레이시아·베트남·타일랜드 등의 동남아시아 지방의 야생종이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파되어 개량되었다고 하였으며(佐佐木, 1960), 또 다윈(Darwin, 1868)에 의하면 이 적색 야계 이외에 2~3종의 야계가 있으나 이 적

색 야계만이 가계(家鷄)의 조상이라고 하였다. 페터즈(Peters, 1934)에 의하면 적색 야계 중에도 1천가지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 1) Gallus gallus Murghi, Robinson and kloss
- 2) Gallus gallus gallus, Linné.
- 3) Gallus gallus jabouillei, Delacour and Kinner.
- 4) Gallus gallus bankiva, Temmink 등이며 공통된 특징은 단관이며 자웅 모두 외모는 지금의 갈색 테그혼에 근사하며 옹추는 오렌지 또는 적색의 가늘고 긴 경우(頸羽; Hackle)가 있고 익견(翼肩)·안부(鞍部)·장부(胸部)는 흑색이며, 자추는 적갈색의 흑반점(黑班點)이 있는 우장(羽裝)을 가지고 있다. Ear Lobes(耳朶)는 백색 또는 적색이며 알은 약간 황색에 가까운 백색이고 연간 보통 10개 정도 산란하지만 개중에는 20~30개를 산란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Hute (1946)에 의하면 이 적색 야계를 잡아서 축사에서 사육한 것이 산란율이 높아졌으며 연간 22수의 평균 산란수가 62.5개라고 하였다.

가계가 처음 인류에 의하여 사육된 연대는 서기전 1,700~2,000년경의 인도 지방이라고 추정되며 서기전 1,500년경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시베리아를 거쳐 북유럽에 보급된 후 영국으로 건너갔다고 본다. 중국 고사 기록인 문헌(周禮春官·周官·禮記 등)에 의하면 벌써 서력 기원전 1,400년전에 여러가지 닭의 종류가 있었으며 한편으로 서유럽에 전파된 기록을 보면 기원전 1,400년경 Aryan족이 인도에 침입했을 때 인더스강 유역에 가계가 사육되고 있었고, B.C. 600년에 페르시아인의 인도 침략시 가계를 가지고 갔으며 다시 B.C. 400년경에 그리스의 페르시아원정시 그리스로 전파되어 남유럽 전역에 보급되어 사육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아시아에서의 닭의 사육은 유럽보다 약 1,000년 정도 앞서 있으며 크리스트 구약전서나 에집트 고대 조각에서도 그리스 신화나 호머의 시에서도 닭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나 신약전서에는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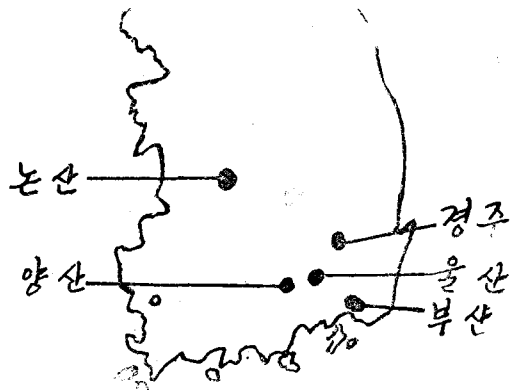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아시아의 양계는 약 3,000~4,000년 전이고 유럽의 양계는 약 2,000~3,000년 전부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오골계도 원산지가 같은 베트남 지방이나 인도지나 지방의 적색 야계에서 분리되어 육종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골계의 원산지를 일본의 佐佐木는 베트남 지방, 芝田는 인도 또는 인도지나라 하였고 田名部(1966)는 佐佐木와 같은 베트남 지방이며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옛날부터 일본에서 사육되어 왔으며 관상용으로 진귀하게 여겨져 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씨조선 이전 고려조에서 벌써 이 오골계를 사육 하었다고(야담집) 하며 관상용 또는 약용으로 진귀하게 보존되어 왔으니 아마도 중국 지방에서 도래하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佐佐木(1960), 芝田(1965)에 의하면 일본에 오골계가 수입된 것은 德川幕府 초기(1600년경)이며 일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의 이 오골계의 사육사(飼養史)는 제1도와 같이 그 분포 상황을 고찰하여 볼 때 옛날 백제조나 통일신라 시대에 궁중이나 사족(士族)들 간에서 애완용이나 약용으로 사육되었던 것이 현재까지 전래된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 제 1 도 > 오골계의 분포



3. 오골계의 특성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오골계는 적색 야계와 비슷한 체중·산란성·취소성 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오골계가 우리 나라에 전파된 후로는 약제(藥鷄)로서는 그 가치가 널리 인정되었기 때문이며 (辯證奇門千卷·皇輔靈樞經說篇·東醫寶鑑·東洋醫學大辭典 등) 비교적 다른 품종과의 혼혈이 되지 않고 그 특성을 잘 보존하여 왔다고 보며 사양관리면에서도 우리나라 특유의 기호성 음식물인 마늘·고추·양파·정구지 등 자극성인 것을 좋아하고 옛부터 사람과 같이 생활하여 왔기 때문에 장기간 순종으로서의 우수성을 구비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리고 응계의 울음소리가 듣기 좋고 새벽우는 시간이 정확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시계 대용으로도 사육되었을 것이며 발육 중이나 성계가 된 후에도 다른 종류와 달리 싸우는 일이 없고 온화한 성격이며 모란(Crest)과 모염(Beard)이 아름답고 화려하며 뿔(冠)의 모양이 장미 또는 호두뿔으로 매우 특이하였고 발가락(toe)의 수가 다른 종류보다 한 개가 더 많아 5개이다.

동의보감(1585)에 나와 있는 약효를 보면

고기 : 강심작용이 있으며 심복(心腹)의 악기(惡氣)와 수족의 마비, 산후 허약 및 산후 정복작용(整腹作用)을 도우며, 절상(折傷)과 종기(腫氣)를 치료하게 하고 가시(竹木刺)가 나오지 않을 때는 살을 덮어두면 잘 빠져 나온다.

쓸개 :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야맹증 포함)와 피부염을 치료하게 한다.

심장 : 오아(五邪·風·寒·暑·溫·乾 등)를 치료하며 보약이다.

피 : 악성 위장병(위암 등)에 효과가 있다.

기름 : 귀병을 치료한다.

장 : 요루증(尿漏症)에 효과가 크다.

간 : 보장(補陽)

뱃피 : 최류제(催乳劑)

근위(筋胃)중의 황피 : 누정(漏精) 및 피오줌

(尿血)과 월경 과다 및 대하(帶下)를 그치게 한다.

통 : 당뇨병을 치료하고 탈장(脫腸)에 효과가 있으며 고장(蠱脹; 자라배)을 소화시키고 유뇨(遺尿)를 그치게 하며 흉터를 아물게 한다.

서기 1970년 2월경의 선세이서울 주간지에서 신비의 닭과 대화하는 노인에서 충남 논산군의 이발순(67)씨는 5대째 이 오골계를 사양해 왔으며 현재 16수가 남아있다고 한다. 이노인(李老人)은 조상이 물려준 이 오골계를 어린 시절부터 60여년을 소중하게 사육하였지만 부화율과 산란율이 별로 좋지 못하여 번식이 부진하였다고 하며 위급해진 환자들을 위하여 내놓곤 하여 좀더 번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번번히 놓치고 말았다고 한다. 성계의 체중은 평균 숫놈 2.5kg, 암놈 1.8kg이고, 난중(卵重)은 평균 30g, 산란율은 연평균 100개 내외이며 부화율은 극히 낮아서 약 30% 정도라고 되어있다. 이노인의 체험담에서는 만성 명장염 환자인 박재용(41, 육군 중령)에 오계약(烏鷄藥)을 투약하여 현대 의학이 놀랄만큼 커다란 치료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또 1970년 3월 8일자 주간중앙에서는 동래의 오골계라는 제목 아래 경남 동래군의 권세충씨가 100수 가까운 오골계를 사육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의하면 일제 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가 해방 후 폐기되었으나 1962년 12월 3일자로 다시 천연기념물 제 135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권씨가 직접 이 오골계를 사육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62년전인 14세 때이며 180년전 4대 조부가 경주부사 재임 중 저명인사로부터 구득하여 퇴임시 동래로 가지고와 지금까지 4대째 가보처럼 사육해 왔다고 한다.

권씨가 사육 중인 오골계 중에는 연령이 31세가 된 것이 7수나 남아있다고 하며 이토록 묵은 닭도 1년에 30~40개의 알을 낳고 있으며 어린 닭은 연 150개 정도 산란한다고 한다.

한편 이 오골계의 약효는 전술한 바와 같거나 권씨에 의하면 보장(補陽)·보음(補陰)·폐

결핵 등에 특효가 있다고 하며 원씨가 서독에 분석 감정을 의뢰한 결과 결핵균을 살균하고 백혈구 증식에 필요한 크레아틴(creatine)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1970년 4월 10일자 부산일보에도 이와 비슷한 기사가 나와 있다.

4. 오골계의 분포

우리 나라의 오골계 분포 상황을 보면 제 1도와 같이 주로 남부 지방인 부산 및 경상남북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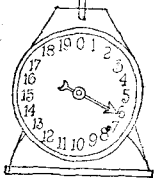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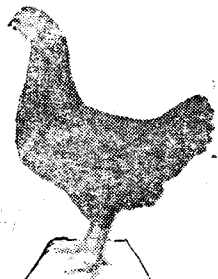
< 표 1 > 오골계의 지역별 사양수

지	역	사	육	수
부	산	지	방	70
동	래	지	방	215
양	산	지	방	70
경	주	지	방	25
논	산	지	방	30
계				410

일부와 충남 논산 지방이며 경북은 경주 지방을 중심으로 약간 사육되어 있고 경남은 경주군·양산군·동래군 등이며 충남은 논산 지방을 중심으로 약간 사육되고 있어 전국의 사양총수는 불과 400~500수 전후에 지나지 않는다.

6. 參考文獻

- 1) 許俊：東醫寶鑑，1585.
- 2) 文化財管理法：1960.
- 3) Darwin and After Darwin 1906.
- 4) 加藤正信：畜産學實驗 家畜. p.180~265, 1962.
- 5) 養鶏の日本社：養鶏大事典. p. 39~46, 1965.
- 6) 佐佐木清綱：畜産大事典. p. 16~18, 1966.
- 7) 佐佐木清綱：內藤元男：家畜育種學. p.13, 1965.
- 8) 養鶏の日本社：養鶏大事典. p. 115~1965.
- 9) 近藤共司：家畜育種學，1958.
- 10) 周禮春官：禮記，12世紀初.
- 11) 辯證奇問千卷：高麗時代.
- 12) 皇輔靈樞經說篇：李鮮初期.
- 13) 車洋醫學大辭典：1954.



B390

세계의 경제계



B300

B390



B 300

美國바부콕原種農場韓國特約孵化場
●全群自家種鶏責任生産

鳳鳴孵化場

忠南天安市鳳鳴洞60-1 TEL. 792